


YULLIN
Newsletter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 삶의 감동이 있는 성도

열린신문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1993년 12월 12일, 방배2동의 작은 지하실에서 설립되어 1998년 10월에 방배동 예배당으로, 2002년 4월에 평촌 현 예배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열린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삶의 감동이 있는 성도'라는 신앙의 목표를 실천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열린교회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3장 7~8절에 근거한 것으로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늘을 열어주신 교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열린신문>은 8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열린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열린교회는 본 신문을 매개로 외부성경공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발견하신 분은 1661-4372로 제보 바랍니다.

 성경 토크아보기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서 가정과 사회 안에서의 세 가지 관계—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를 다루며, 단순한 윤리적 지침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해석된 새로운 관계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중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루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엡6:1)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이 구절이 없다면, 자녀의 순종은 당시 로마 사회나 유교 문화와 별반 다르지 않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어지는 구절(엡6:2-3)을 통해서 부모에 대한 순종이 단순한 법적 질서나 문화적 규범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로 연결된 신앙적 사명임을 강조합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인간 관계의 첫 번째 계명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부모 공경이 단지 부모의 유익을 위한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루는 근본적인 원리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와 생명의 복을 약속하며,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생명의 단축과 심판을 경고합니다. 실제로 구약에서는 부모를 저주하거나 거역한 자에게 사형을 명한 경우가 많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를 인류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죄로 보셨습니다.

현대 사회는 많은 경우에 부모 공경을 선택적이고 상황적인 것으로 여기지만, 성경은 부모를 향한 마음과 태도를 신앙의 본질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지를 통해 우리의 생명에 대한 존중, 나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부모는 단순한 육신의 공급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생명의 통로가 된 존재이며, 그들을 공경하는 것은 곧 우리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부모님을 뒷전으로 밀어두고, 스스로 면죄부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태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며, 부모를 향한 우리의 태도를 매우 크게 보십니다. 결국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지혜자의 삶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존중받고, 복을 받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감당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이자 복된 길입니다. ☆



텍스트와 콘텍스트

즐거움으로 이겨내는 삶의 모순



김성진 담임목사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을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회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전 8:9-17)

좋은 국가적 질서뿐만 아니고,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5절). 왕의 명령을 지키면 행복할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왕에 대한 이런 극찬의 평가는 민주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다소 낯선 가르침일 수 있지만, 조금만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여전히 필요한 지혜입니다. 국가와 사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곳에 세운 사람들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관하셨다면 이 세상에 죄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리심이 우리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지연하신 것은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점점 악을 행하는 것에 마음이 담대해지고 반복적으로 더 심하게 악을 행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의 최고 절정은 14절입니다.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악인은 반드시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의인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질서가 역전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악인의 흥왕과 의인의 고난 속에서 전도자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16절). 이러한 고민 끝에 전도자가 내린 결론은, 왜 이런 일이 이 시대 속에서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17절). 이 결론은 7장 29절과 연결됩니다.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피들을 낸 것이니라.”

전도자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많은 생각과 욕심이 한 사람 왕을 타락시켰고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악의 영향을 받아 세상에 악이 이토록 편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러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에 내가 회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15절). ‘회락을 찬양하노니’는 ‘즐겁게 살 것을 추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악의 문제에 대해서 전도자의 대안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모순된 이 세상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현재 주어진 삶 속에서 즐겁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심각하고 큰 문제에 대해 작고 소소한 행복으로 이겨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제시하는 대안 뒤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행복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12~13). 전도자가 오늘의 인생의 무게를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내 눈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니, 이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즐겁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우리로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현실을 보면서 소망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이 또한 삶의 일부이며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들이라면, 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오늘만큼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라고 합니다. 오늘의 문제는 내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고 소망하며, 오늘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누릴 수 있는 작은 것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2024년 3월 3일 설교 정리) ✨

들어가는 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피조물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관리될 수 있는 통합적인 질서를 주셨습니다. 개인의 양심과 공동체의 상식, 국가의 법과 질서를 통해서 세상이 질서 있고 아름답게 운행되도록 만드신 창조 질서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시작됩니다(잠1:7). 하지만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내가 속해있는 국가와의 관계도 포함합니다. 본문은 국가와 사회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긍정적 통치자와의 관계

1-8절에서는 왕의 긍정적 역할에 관해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국가와 공동체를 다스리게 하심을 알려줍니다. “누가(왕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나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의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1절).

하나님께서 세운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으므로 그 지혜를 통해서 사물의 이치를 정확하게 알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난다’라는 표현은 그 사람이 신적 권위나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는 ‘그의 경직된, 딱딱한 얼굴이 부드러워지느니라’입니다. 왕이 온화하고 온유한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백성들의 딱딱한 얼굴이 평화로워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백성들은 이런 왕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2절). 원문에 의하면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맹세 때문이니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 그 왕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태도는, 누군가가 리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에 복을 주시리라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왕에 대한 순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시작하는 지혜, 사람과의 관계·국가와의 관계도 포함

왕을 선택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국가와 공동체를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
국가적 질서, 개인 행복 위해서도 필요

악한 통치자, 악행 후에도 행동
평안히 죽어서 잊혀가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바뀌기도

이해할 수 없는 모순적 상황의 대안,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주어진 삶 속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행복할 것이며
악인은 심판받을 것을 믿기 때문”

부정적 통치자와의 관계

또 한편으로 전도자는 왕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났을 때 세상이 얼마나 심각하게 부패하는가를 설명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9절). 원어대로 번역하면 “사람이 사람을 다스려 불행하게 만드는 때가 있도다”입니다. 악한 통치자가 폭력과 어리석음으로 다스려서 그 공동체 자체도 불행하고, 백성들도 불행하게 만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통치자들이 그렇게 악하게 다스리고 나서도 그들의 삶이 매우 형통하다고 심각하게 지적합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성전에 가면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히 성전을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또 죽을 때까지 평안히 있다가 아무런 심판도 받지 않은 채 묻혔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어?” 이렇게 잊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10절).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11절에 설명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만일 인간이 죄를 짓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의 정도에 따라서 심

신약개관학교 후기

옛 약속을 알고 새 약속으로 사는 삶



이한영 청년부
leehanyoung@hufs.ac.kr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꽃망울이 모습을 드러낼 무렵, 신약개관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단 여섯 주 동안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수업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뒤 가장 첫 번째 반응은 월간 캘린더를 열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듣지 않을 이유를 애써 찾으려는 시도였을까요?

형형색색 가득한 주중의 일정들, 그리고 주말에는 찬양팀과 청년부 리더 모임으로 가득 찬 일정이었지만 애석하게도 저녁 7시는 아무 일정이 없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다짐을 스스로 한 채로, 친구한 명과 함께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2025년 신약개관학교의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6주간의 수업 목표는 신약의 큰 그림을 구성하는 것, 신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사이신 정창욱 목사님은 성경을 잘 알고 이해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신학적인 화두를 던지시고 수강생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신자들은 말씀의 원리로 살아야 하고, 세상의 원리로 살아간다면 안 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수강생들이 신약개관학교 기간 동안 매일 일정한 양의 성경을 읽게 함으로써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훈련할 수 있게 이끌어주셨습니다.

수업 때 배운 신약성경의 내용을 한 주간 읽으니 성경 구절이 새롭게 다가왔고,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목상도 더욱 풍성해 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얇이 삶으

로, 지성이 영성으로 이어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에서는 신약과 구약의 핵심 주제인 언약과 하나님 나라를 다루었습니다. 익숙하게 사용하는 신약과 구약이라는 단어에 '언약' 또는 '약속'이라는 말이 이미 포함되어 있음을 자주 잊어버리곤 합니다.

구약에서 언약이 세워지고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있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가 중심을 이룹니다. 목사님께서서는 구약과 신약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균형 있게 성경을 읽고 알아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성경만을 선호하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고, 올해는 성경 전 권을 고루 읽어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균형 잡힌 성경 읽기를 통해 언약과 하나님 나라를 더욱 이해하고 복음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십자가 복음은 현재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은 저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과거 회심의 경험,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헌신했던 기억, 그 가운데 기뻐했던 저의 모습이 현재 그렇지 못한 삶을 끊임없이 변명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죄로 인해 브라이도리온에서 채찍질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자국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삶은 지금 스스로에게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과거 영광의 순간을 벽에 걸어두고 방 안에만 머무르는

모습인 것만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도전이 되어 날마다 복음의 감격으로 살아가고자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 쫓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귀신을 쫓는 축귀 사역이 중요한 이유는 귀신의 통치를 종식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오게 하는 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앉으셔서 다스려야 할 자리에 있는 우상이 너무나 많았음을 느꼈습니다. 내면에 있는 세상의 욕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통치와 나라가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6주간의 신약개관학교 기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열정적으로 수업해 주신 정창욱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업을 듣고 사고의 폭이 넓어졌고, 신약 배경지식과 이해가 깊어져 성경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언약과 하나님 나라로 관통하는 성경의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목상하는 방법을 배우고 성경 읽는 훈련을 할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신약개관학교를 위해 섬겨주신 조일권 강도사님과 허신구 집사님 부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했던 교회의 지체 되신 모든 분께 날마다 살아있는 십자가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새가족

▶▶ 장년

- 조준구(92)
- 김연경(92)
- 강옥자(46)
- 장수현(59)
- 신민선(96)
- 한경태(80)
- 김은희(79)
- 김종범(86)
- 서미지(91)
- 이주현(94)
- 김혜진(68)
- 김준기(87)
- 김예지(89)

▶▶ 청년

- 오연희(68)
- 박현영(81)
- 김충현(70)
- 채원재(77)
- 임성준(73)
- 장형익(62)
- 이상현(95)
- 조하영(96)
- 최민(01)
- 이현희(99)
- 김서현(05)
- 김채현(05)
- 윤광민(83)
- 김나경(00)
- 김예희(91)
- 남은주(80)
- 김어진(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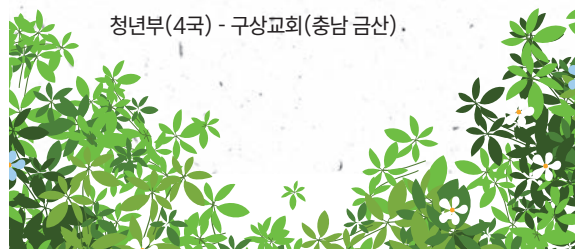
2025 국내아웃리치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며
복음전파는 신자의 소명입니다

6월6일(금)~8일(주일)

장소

- 장년1교구, 청년부(3국) - 매향교회(경기 화성)
- 장년2교구, 청년부(1국) - 반천교회(강원 정선)
- 장년3교구, 청년부(1국) - 덕천교회(강원 정선)
- 장년4교구, 청년부(1국) - 상동교회(경북 예천)
- 장년5교구, 청년부(2국) - 여량교회(강원 정선)
- 장년6교구, 청년부(2국) - 영광교회(충남 금산)
- 장년7교구, 청년부(2국) - 미성교회(충북 제천)
- 청년부(4국) - 구상교회(충남 금산)



추천도서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사디어스 윌리엄스/두란노서원

이 책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기 마음'의 노예로 사는 우리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진단했다. 저자는 '자아 숭배 십계명'의 신학적·철학적·논리적 실패를 폭로하고, 자아에 매몰된 무리에게 부화뇌동하지 않을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불러 모은다. 현대사회 주류



인생관을 일군 다양한 사상가들의 문화 형성 과정을 추적하고, 우리가 흠뻑 젖어 사는 이 문화와 세계관의 바다를 분별하게 도와준다.

...나아가서 저자는 자아 숭배교에 갈취당한 우리의 '경외와 독창성, 자유, 진정성, 겸손, 용기, 모험, 진짜 사랑을 하는 능력'을 되찾도록 이끈다. 자기중심성의 짐을 벗은 승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냈으며, 일상에서 '자아'라는 신을 숭배하지 않도록 도와줄 기도문과 실제적인 훈련 가이드를 제공한다. 내 마음을 따르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다.

이제 용기를 내고 결단하라. 자멸을 부르는 자아 숭배의 길에서 떠나, 우리와 달리 한없이 경이롭고 너그럽고 존엄하신 하나님 중심으로 보다 의미 있게 살라!

(출판사 서평)

주요사역

- 2일(금) 백향목 봄 소풍
- 3일(토) 온세대아침예배
- 4일(주일) 어린이주일/학습.세례.입교.유아세례식
- 11일(주일) 교회학교 교사학부모 세미나/새가족환영축제
- 16일(금) 가정세미나
- 17일(토) 사랑부 봄 예제르
- 18일(주일) 스승의주일(교사섬김의 날)/성령강림주일
- 25일(주일) 아웃리치 전도 교육

주바라봄기도회 설교간추림

누가와 함께 따라간 예수의 길



01. 이미 그러나 아직 (눅 17:20-37)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 바리새인들 질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너희 가운데, 너희 앞에) 있느니라” 대답하심-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임을 말씀하심/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대신 ‘인자의 날’이라고 표현/인자의 날은 ‘(시간)이미 그러나 아직’, ‘(공간)확정 그러나 미정’/이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는 생명을 찾게 될 것/“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가 죽으신 십자가 믿음으로 모여든다는 뜻/이땅에서의 고난은 곧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며 과정/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 함/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나의 하루가 ‘인자의 날’의 한 부분이 됨

02.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성도 (눅 18:1-18)

본문은 17장의 인자의 날과 연결됨/예수님께서 오셔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 오실 인자의 날 사이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는 필수적임/‘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 ‘끈질긴’(항상&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가르치심/‘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 ‘겸손한’기도를 가르치심/겸손한 기도는 죄인을 의인으로, 교만한 자를 죄인으로 역전시킴/기도하지 않는 것은 포기하는 것, 기도하면 이길 수 있음

03. 연약한 자를 위한 하나님 나라 (눅 18:15-30)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어린아이(브레포스-갓난아이, 영아): 무력하고 의존적인 존재,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제자들이 꾸짖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은 환대(프로스칼레오)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것이라고 선포하심/부자 관리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완벽했지만 자기 의와 소유에 집착,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함/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음/모든 것 앞에 하나님을 둘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

04. 눈먼 제자, 눈뜬 맹인 (눅 18:31-43)

마지막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의 끝/육신의 눈은 열려 있지만 영적 눈이 먼 제자들(예수님의 반복된 고난과 부활 예고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함, 욕심과 성공에 대한 집착 때문) vs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여리고의 맹인(간절함과 믿음이 예수님의 긍휼을 이끌어냄, 육신의 눈뿐 아니라 영혼의 눈도 뜨여 구원받고 제자가 됨)/욕심과 계획, 세상적 성공의 욕망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레마가 깨달아짐/여리고의 맹인처럼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함

05.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눅 19:1-10)

여리고는 여호수아에 의해 저주받은 성, 죄와 저주의 상징/예수님은 이 저주받은 도시에서 회복과 구원의 사역을 하심/삭개오는 외면받는 세리장이었지만, 예수님을 보고 자 하는 갈망으로 나무에 올라감/예수님은 그를 먼저 알아보시고 이름을 부르심/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믿음이 함께 작동하는 구원의 현장/삭개오는 자발적으로 재산의 절반을 나누고, 잘못 취한 것을 네 배로 갚겠다고 결단/예수님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언

하심/예수님의 사역 목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함”/저주받은 여리고와 같은 우리 삶에도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우리 역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함

06. 삶으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눅 19:11-27)

사람들은 정치적 회복과 승리를 기대하며 곧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줄로 생각/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설명하심/예수님을 ‘귀인’에 비유하시며, 종들에게 ‘한 므나’씩 맡기심/‘한 므나’는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과 사명/“장사하라”라는 말은 단순한 이익 창출이 아니라, 맡긴 것을 삶으로 실현하라는 부르심/열 므나, 다섯 므나를 남긴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고, 더 큰 일을 맡게 됨/한 므나를 숨겨둔 종은 두려움으로 살았음-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삶을 낭비한 것/하나님 나라는 은혜와 초청의 나라지만, 동시에 책임과 심판의 나라-거부하는 자는 그 나라에서 제외됨/맡겨진 ‘한 므나’에 충성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오늘 이 땅에 세워가는 것

07. 불편한 것을 찾아서 (눅19:45-46)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예수님/성전에서 이루어진 환전과 제물 매매는 경건한 예배를 돕기 위해 시작된 것/시간이 지나며 환전은 과도한 수수료를 붙인 이윤 추구의 수단이 되었고, 제물 매매는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결탁해 폭리를 취하는 구조로 타락/예수님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의 구조적인 타락에 대해 책망하시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성도는 항상 자신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는지, 편의를 위해 타협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야 함

08. 아들의 권위 (눅 20:1-18)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셨고, 이에 대해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도전-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 자체를 거부하려는 시도/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에게서인지 되물으심-그들의 불순한 의도를 드러내며,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후회적으로 나타내심/‘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마지막에는 아들(예수님)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이를 거부하고 죽였다는 사실을 말씀하심/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머릿돌이신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 중심에서 계심/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이 돌이 누구에게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듦/버림받은 돌이 아닌, 머릿돌되신 예수님을 우리 삶에 존귀하게 모셔야 함

09.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눅 20:19-26)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적 이슈인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로 예수를 시험함/이 질문은 대답에 따라 로마 정부나 유대 백성에게 각각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치적 이슈/예수님은 테나리온 동전을 보여 달라 하시고, 그 위에 새겨진 가이사(로마 황제)의 형상과 글을 지적하신 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심/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돈은 세상에 속한 것이므로 세상에 돌려주되, 하나님의 형상과 말씀이 새겨진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야 함을 강조/성도는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가?

10. 서기관들의 신앙을 버리고 (눅 20:41-21:4)

서기관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이해하며 정치적-군사적 회복을 꿈꾸었음/이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민족주의적 기대와 개인적 욕망에서 비롯된 왜곡된 신학/예수님은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 부른 시편 110편을 통해 이들의 제한적 시각을 바로잡으심/서기관들은 사람들의 존경과 인사를 받기 위해 외형을 꾸미고 권위를 과시/이는 예수님의 겸손하고 섬기는 삶과 대조됨/말씀을 많이 알고 경건해 보이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모습이 ‘서기관 증후군’/‘과부의 두 렵돈’은 작은 헌금이 신앙의 진심을 드러낸 예,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으로 서기관들의 탐욕과 대비하여 성전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내심/헌신과 경건도 본질보다 형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11. 성전이 무너질 때 (눅 21:5-19)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전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자,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 예고하심/이는 단순한 건물의 붕괴가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 종교 체계와 권력 구조, 그 속에 숨겨진 탐욕과 정치적 야망이 하나님의 나라와 충돌하며 심판받게 될 것임을 뜻함/종말의 징조로 보일 수 있는 현상들—전쟁과 소요, 민족과 나라 사이의 분쟁, 지진, 기근, 전염병, 하늘의 무서운 징조들—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있으라 하심/ 제자들에게 다칠 박해와 환난은 오히려 복음을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심/그 순간에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며,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시겠다고 하심/“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난의 시기를 이기는 방식은 두려움이나 폭력, 정치적 결탁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인내임

12.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눅 21:20-28)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포위되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심/실제로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성취됨/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이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전조적 사건/제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피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은혜의 사건이기도 함/예수님은 더 큰 심판과 구원의 날(‘인자의 날’)을 예고하심/천체의 이상과 자연의 혼란, 두려움이 임하지만, 성도에게는 구원의 날/믿는 자는 담대히 머리를 들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함/종말 신앙은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충실하게 오늘을 사는 것

13.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눅 21:29-38)

성전 멸망과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마무리하는 결론/예수님을 통해 세워질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우리 삶의 ‘예루살렘’도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무화과 잎이 여름을 알리듯, 성전 멸망이 하나님의 나라 도래의 징조/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다는 표시/세상이 무너질 때의 주의사항-방탕함과 술 취함&생활의 염려/예수님의 마지막 명령-“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예수님께서 종말을 앞두고도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셨듯, 성도들도 또한 세상적 염려에 휘둘리지 않고 깨어 기도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함



14. 사랑으로 작성된 구원 (눅 22:1-23)

유월절이 다가오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가롯 유다는 사탄에 이끌려 예수를 넘기기로 작정/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하심/장소와 사람을 미리 아시고 지시하시는 예수님, 이 고난의 과정이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드러냄/유월절 식사에서 떡과 잔을 통해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심/이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새로운 언약의 선포/배신자가 함께 앉아 있음을 말씀하시지만, 그를 특정하지 않으심/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인간의 음모로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성취된 사건

15. 유월절의 교훈 (눅 22:24-30)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철저히 맞물려 있음/이 식사를 "간절히 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탁 교제를 나누심-고난을 통한 구속의 시작/떡과 잔을 나누시며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새 언약'을 선포하심/십자가는 하나님 나라를 여는 문이며,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제자들에게 그 나라가 허락됨/제자들 사이에 누가 큰 자인지 논쟁이 일어나자,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가르치심/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다스릴 것을 약속하심/제자들은 예수님의 섬김을 계승하며 살아가야 할 상속자들/제자들은 그 섬김의 식탁에서 일어나,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함/이 식탁은 제자들의 새로운 사명의 시작임

16. 감람 산의 두 기도 (눅 22:39-53)

유월절 만찬 후, 평소의 습관을 따라 감람 산으로 가서서 기도하심/제자들에게 유혹(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셨고, 스스로도 그러한 시험 앞에서 기도하심/예수님의 시험은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본능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결단 사이에서의 갈등/예수님의 기도는 첫 사람 아담의 불순종을 회복하는 순종의 기도-본능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맘이 피처럼 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심/제자들은 깊은 슬픔에 빠져 잠들-예수님의 고뇌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들이 기대한 '이 땅의 나라'가 무너졌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들은 기도 대신 무기력에 사로잡혀 시험에 대비하지 못함/말고의 귀를 회복시키심-제자의 실패를 감싸안는 주님의 사랑/기도의 결과-답대한 예수 vs 무기력한 제자/성도들이 시험과 고난 앞에서 기도로 준비되어야 함을 보여줌

17. 두 증인의 통곡 (눅 22:54-71)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당하시는 장면과, 그 집 안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병렬적으로 배치하여 보여줌/예수님은 겹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피와 같은 땀을 흘리며 통곡하심-이 눈물은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흘린 순종의 눈물/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자 밖에 나가 통곡-그것은 사명을 피한 자의 눈물이자, 실패와 자책에서 비롯된 통곡/두 통곡의 차이는 '누구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나에 있음-예수님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 베드로 눈물은 무너진 자아와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통곡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며, 사명을 지키는 울음은 하

나님 앞에서 시작되어야 함

18. 불법의 십자가가 주는 생명 (눅 23:13-25)

예수님께서 받은 불의한 재판 과정-빌라도는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죄를 찾을 수 없다고 공표, 헤롯 역시 예수님을 심문한 후 죄가 없다고 판단/그런데도 유대 지도자들과 군중들은 예수님의 사형을 끈질기게 요구/빌라도는 정의를 저버리고 민심을 따라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고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바라바를 풀어줌/인간의 불의와 모순으로 이루어진 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짐/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죄인의 자리에 서심으로써 바라바 같은 죄인에게 생명을 주심/모든 인간이 바라바와 같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희생으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복음의 상징/ 그 생명의 은혜에 진실하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함

19. 십자가와 증인들 (눅 23:26-43)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실 때, 로마 군병은 구경하던 사람 중 하나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함/이후 시몬의 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성장한 점으로 보아, 시몬의 삶은 이 사건 이후 완전히 달라졌음/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이끈 것처럼 우리 역시 원치 않는 십자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섬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함/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우는 여인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올라"라고 하심/진정한 애통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죄에 대한 슬픔과 회개로 나아가는 것/십자가에 같이 매달린 한 강도는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나라를 바라봄/구원은 마지막 순간에도 가능하며, 진실한 회개와 믿음이 열쇠임/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인가?

20. 하늘과 땅의 변화 (눅 23:4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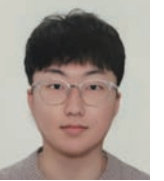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심/그 시간 동안 하늘과 땅에 징조가 나타남/하늘이 어두워진 것은 구약 선지서들이 예언한 하나님 심판의 징조/성전 안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 믿는 이들이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누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간결하게 기록, 사람들의 변화를 자세하게 기록/백부장은 예수님을 의인으로 인정함/백성들은 가슴을 치며 슬퍼함/예수님을 따라가던 여인들도 이제는 침묵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봄/산헤드린 공회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장사함/십자가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능력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흘러 내려옴

21. 부활의 증인들 (눅 24:1-12)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빈 무덤과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부활을 믿게 됨 vs 같은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믿지 못함/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고, 여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며 부활을 믿고 증인이 됨 vs 제자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 말을 믿지 못함/부활의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함/연약하지만, 말씀을 기억하고 사랑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 ☆

주바라봄기도회 후기

다시 품은 하나님 나라



한성모 청년부 031102hsm@naver.com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뜨겁게 경험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 이번에 주바라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뜨겁게 갈망하고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저의 상황은 이전에 가장 가까이 뜨겁게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너무 당연시해서 오히려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를 구하러니 말씀이 마음에 잘 들어오지 않고 기도를 드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잊고 지내서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바라봄기도회를 시작할 때 몸과 마음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이 자리가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서 처음엔 기대는 없지만, 그저 붙잡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기도회 기간이 고난주간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많은 묵상을 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처음엔 십자가도 저에게 너무나 흔하게, 당연시하게 느껴져서 큰 감흥이 없었는데, 그런데도 주님께서 반복적인 부르심과 역사하심을 통해 저에게 주신 십자가를 다시 바로 세워주시고 귀하게 여길 수 있게 허락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제가 달려 죽었어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신 덕분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이미 구원이 허락되었다는 말씀도 어렸을 적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왔지만, 이번에는 너무나 새롭고 귀하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이 감사함 때문에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 큰 희생을 통해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나의 죄를 너무나 명확히 깨닫게 하고 또 동시에 그 사랑 때문에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이신 사랑이 말씀을 통해 주어지고 이것을 마음 반석에 새기며 품고 살아가기를 다시 간절히 원하게 되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을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전에는 막연히 품고 있었는데, 주바라봄 새벽기도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며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원하시는 예수님을 이번 주바라봄기도회를 통하여서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금 깊게 느꼈고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넘치게 받았습니다.

여전히 저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세상이 아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과 너무나 유익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교사대학 후기

사랑에 홀라당, 섬김에 쏙 빠지다



임지연 장년4교구
dlawldushot@naver.com



2025년 영아부 햇병아리 교사 임지연입니다. 집도 멀고 토요일에도 출근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교회학교 교사를 엄두도 못 내고 있었습니니다. 서울에서 안양으로 재작년 끝 무렵 이사를 왔고, 작년에 중3이던 딸이 먼저 영아부 교사로 자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도 용기를 내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딸아이가 매주 영아부 아가들의 영특함과 귀여움에 대해 자랑하며 사진을 보여주었고, 귀여운 영아부 아가들에게 홀라당 반해 섬김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갓 돌 지난 영아부 아가들이 올망졸망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3월에는 4주 동안 교사대학에서 강의를 듣고 리포트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저의 모교이기도 한 총신대 교수님들이 매주 오셔서 은혜로운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1주 차에 신학과 박재은 교수님께서 '교리에서 발견하는 복음'을 주제로 교리나 교회학교의 모든 활동은 학생들이 은혜를 경험하는 데로 이끌기 위한 빌드업이라 하시며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포인트를 교리 속에서 짚어주셨습니다.

교회학교는 신론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외해야 한다는 부분이 특히 기억에 남고, 예배 시간만큼은 진지하고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옳고 영아부 아가들

이 경건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주 차에는 담임목사님께서 '성경에서 발견하는 복음'을 주제로 강의해 주셨습니다. 교회 교육의 목표는 회심이 끝이 아니며 삶의 실천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회심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구원론에만 집중된 교회 교육으로 인해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부족했고 내세적 구원과 현세적 창조 질서 두 가지 모두를 균형 있게 가르쳐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실제로 교회학교 현장이 구원론에 집중되었고, 회심한 아이들과 회심해야 할 아이들이 함께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모두를 돕고 균형 있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3주 차에는 신국원 교수님이 '기독교 세계관과 교육 비전'을 주제로 강의하셨습니다. 세계관은 안경인데 성경이라는 안경을 씌워주는 것이 교회학교 교육이다, 교사가 먼저 안경을 쓰고서 아이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교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보고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셨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강의를 들을수록 교회학교 교사로서 제 역량이 많이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저부터 바른 기

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갖추도록 애써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4주 차에는 '복음으로 가르치는 기독교교육'을 주제로 함영주 교수님이 강의해 주셨습니다. 목사와 교사의 부르심은 본질적으로 같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직분만 다른 것이라고 하셔서 교회학교 교사로 불러주심에 대한 감격과 책임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교사의 사명은 반 목회인데, 반 목회를 잘하기 위한 조건은 교사 개인의 건강한 신앙과 교육역량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교사에게 많은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건강한 영성과 함께 전문성도 갖추기 위해 공부해야겠다는 마음도 생겨났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강의를 들으니 매시간 감동되고 영혼이 풍성하게 회복되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사로서 사명감을 확고히 해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오래 식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가치 없던 죄인을 영혼을 살리는 교사로 불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영광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 찬양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린 영혼들을 섬기겠습니다. 교사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기도세미나 후기

기도, 자녀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다



이지은 장년3교구
je712@naver.com



2월 20일, 기도세미나를 위한 스태프 기도회가 시작된 날이다. 전날 수요섬김기도회 스태프들이 함께 모여 기도회를 하고, 한 달간 릴레이 한 끼 금식기도와 매일 작정 기도를 시작하기로 했다.

나는 이 기도회에서 조희숙 전도사님과 눈이 맞아(?) 매일 금식기도와 작정 기도를 알리는 알림이로 섬김을 맡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매년 기도세미나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도전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이 생각났고 이번에도 기대되었다. 또한 이런 섬김이 뒤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했고, 이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했다.

특별히 전도사님이 스태프 기도회에서 기도세미나 강사이신 유상섭 목사님의 저서 '예수님의 기도'를 읽고 세미나에 참석하라고 추천해 주셨고, 나는 퓨리틴도서관에서 이 책을 대출하였다. 책 앞에 감사님이 신학 교수로 재직하셨던 때의 제자들인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이 들어있었다. 그중에 익숙한 권경철 목사님의 추천사도 있어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다.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을 보며 나도 어렸을 때 아빠를 따라 산기도도 가고, 기도원도 가고 함께했던 추억들이 떠올랐다. 지하 예배당에서 깜깜한 채로 간절히 기도했던 날들도 기억났다.

그리고 보니 참 많은 기도의 추억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지금의 나의 기도를 돌아보며 간절히 기도가 별로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다. 지금도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바라고 구하고 있다. 이 책에도 예수님의 감

람 산 전쟁기도를 되돌아보며 자신의 기도를 진단하는 질문을 몇 개 주셨는데, 그중 마지막이 "예수님과 같이 과연 온몸을 땀으로 적시면서까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이다.

또 하나, 이 책이 나에게 준 메시지 중 하나가 이것이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성공적인 사역의 수단으로 삼는 이 시대에 이것(예수님이 사역을 뒤로하면서까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신 것)은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기도가 성공적인 사역의 수단이 될 때, 목표했던 성공이 오면 기도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맡기신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기도가 사역의 성공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기도의 교제 자체는 언제나 신자의 모든 사역의 본질과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성공적 사역 또는 복음전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였습니다."

꼭 나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기도 자체, 하나님 아버지와 갖는 교제의 시간. 이것 자체가 본질이 되어야 하는데 나의 기도는 수단이였다.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수단. 나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기도를 한 적이 있는지 생각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일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훈련하고 있다. 책을 읽으니 더욱 세미나가 기대되었다.

세미나 전날 미리 공지된 대로 마태복음 5-7장을 읽으면서 다음날을 기대하였다. 그날은 스태프이기 때문에 9

시 30분부터 교회에 와서 간식 준비와 예배당 안내를 기쁨으로 섬기면서 강의를 기다렸다. 그리고 앞자리에서 강의를 듣게 되었다.

강사님의 첫 말씀이 기도의 이론을 모르지 않지만, 안하는 게 문제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많은 배움과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마디의 기도이지. 그래서 구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세미나의 많은 말씀 중 열흘이 지난 지금도 잊히지 않고 마음에 새겨진 것은,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다. 사명은 총처럼 섬겨야 하지만, 신분을 잊지 말라 하셨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니,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도와달라는 것이 기도라고 하셨다. 그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 죄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자녀답게 살기 위한 간구였구나. 그래 맞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지. 아버지 자녀답게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 이일부터 기도할 때 아버지라는 단어를 더 사용하려고 훈련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신분을 잊지 않고 자녀답게 살기 위한 기도임을 잊지 않고 기도하려 한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종의 섬김을, 십자가 죽음까지 사명을 감당하신 것을 본받아 아버지의 자녀임을 감사하며, 종의 섬김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길 간구해 본다. ☆

새생명전도학교 후기

그 사랑에 스며, 숨을 내쉬다



이지예 사모구역
ingzeee@naver.com

누구나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묻게 됩니다. 그 가치를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알기 전, 저는 스스로 무가치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그 마음은 차츰 제 삶에 그림자로 드리워졌습니다. 불안했고, 외로웠고, 사랑받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세상에 희망이 없었고, 그래서 제 삶은 늘 증명의 연속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작은 말에도 쉽게 무너졌고, 부서진 마음 조각으로 타인과 나 자신을 찌르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 존재가 신이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짜인 인생에 나를 구겨 넣는 답답한 이름, 그것이 하나님이라 생각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밝고도 참 자유로운 언니를 만났습니다. 그 언니는 일상 속에서 종종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이야기했고, 그럴 때마다 저는 “언니, 신은 없어. 그건 나약한 사람이나 믿는 거야!” 하며 날 선 말로 되돌려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런 순간들이 제 마음 한켠에 아주 미세한 진동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철저히 숨기고 싶던 제 안의 연약함을 두드리는 그 이름. 그 이름이 가진 무게와 힘은 제 생각보다도 강했습니다.

결국 저는 언니의 “한 번만!”이라는 간청에 교회에 갔습니다. 처음 간 순간부터 벼락처럼 예수님이 믿어졌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마음은 허기졌습니다. 알 수 없던 이야기들이 알고 싶어졌고, 사람들이 찬양하며 짓는 미소가 저도 갖고 싶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예배를 찾아다니며 말씀을 붙들었고,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알고 싶어요.”

어느 날,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던 손끝에 어색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늘 불안해 물어뜯기 바빴던 손톱이 자라난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손톱달처럼 작고 미세한, 어색하고도 실제적인 감촉. 그렇게 저는 사랑에 스며, 처음으로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스스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두드려 벌어진 제 마음의 틈에 그분의 사랑이 스며들어 사랑이 가득해지자, 더 이상 제 인생의 주어는 ‘나’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이 저 하나만 담기엔 너무 커서 점점 ‘우리’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만큼 너무도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롭다는 걸 사랑의 충만함을 통해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소망 없던 저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하나

님, 저 앞으로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꿈의 첫발을 내디딘 순간은 사실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제 삶을 운영해 오던 모든 방식과 모든 수식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겠다는 고백이자 실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떠오른 건 바다 앞에서 마주한 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물을 무서워했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는 늘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 공포를 이기고자 스쿠버다이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이빙을 할 때는 ‘버디’라는 친구와 꼭 함께해야 합니다. 서로의 숨을 확인하고, 손을 내밀고, 눈빛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동반자, 버디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세계. 버디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지는 30%, 바다는 70%야.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지 않니?”

그 말은 마치 초대처럼 들렸습니다. 숨을 고르고, 저는 그 깊은 물속으로 천천히 몸을 맡겼습니다. 두려움을 지나, 사랑에 스며드는 순간이었습니다. 햇살이 일렁이는 바다 물결, 사람의 숨으로 피어난 반짝이는 물아지랑이. 그 모든 순간 제 세상은 확장되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제 삶 속에도 그런 ‘버디’가 계신다는 것을. 숨이 가빠지는 순간에도 곁을 떠나지 않고, 눈을 마주치며 괜찮다고 손을 잡아주시는 분. 나의 예수님.

그렇게 저는 새로운 꿈을 안고, 버디 예수님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전쟁으로 삶을 잃고, 텐트가 세상이 되어 버린 난민들도 만나고,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길로 나온 서울역의 노숙인들 그리고 보호종료청년들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남편과 눈부신 딸아이도 만났습니다. 제가 상상도 못 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다니며 전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의 이 여행을 새생명전도학교를 통해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받은 사랑을 돌아보며 전도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찾은 전도는 숨쉬기, 숨결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들숨’이 있다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날숨’으로서의 삶. 성도이기에, 성도여야만 할 수 있는, 숨 쉬듯 자연스러운 가장 기본적인 순종.

그러니 전도는 어떤 역할이나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사랑받은 자의 ‘숨결’입니다. 사랑을 알기에,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제가 믿고 살아가는 전도입니다. 오늘도 저는 숨 쉬듯 이야기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아세요?” ☆

곰곰이 생각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글·그림: 나동훈
gomgom2@designzip.co.kr

민주주의가 좋은 이유는 다수의 판단과 결정이 옳아서가 아니라,



사람의 본성이 악해서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성직제도가 나쁜 이유는 성직자가 교인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의 본성이 악해서 영적 분별력을 독점하는 것이 해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역사가 말해주듯 건강한 민주주의의 담보는 깨어 있는 시민적 교양과 분별력이고, 건강한 신앙의 담보는 진리를 향한 사랑과 영적 분별력입니다.

당신과 제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이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제1회 열린선교대회



복음을 듣고

세상을 향하여

선교지 제법

일시: 4월 27일(주일) 오전 9시 20분~오후 2시
내용: 북한, 중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선교부스를 통한 체험

선교대회

일시: 4월 27일(주일) 오후 4시~6시 20분
장소: 본관 3층 예배실
내용: (1부) 열린교회 선교사역 소개 및 비전 선포
(2부) “선교는 영광스러운 특권과 기회입니다” 주제 특강
강사: 남경우 선교사(한국선교훈련원장/前 인도네시아 선교사)

기간 중의 화요전도기도회, 수요섬김기도회, 수요예배, 금요기도회는 선교사님들의 말씀 및 강의로 진행됩니다

일시 4월 27일(주일) ~ 5월 2일(금)

장소 본관 3층 예배실

포토에세이

사진: 김범무(정년4교구)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시편 66편 4절



행복한 사람

넘어진 그 자리에서 부르신 하나님

정건희 장년2교구
Thisbe97@gmail.com

최근 직장에서의 회식 자리에서 묘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넨 술을 안 하는 이유가 혹시 종교적 이유야?” 저의 대답을 들은 몇몇 동료분께서는 자신들도 한때 교회에서 찬양팀 리더로 열심히 봉사했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서로에게 조심스럽게 물으며 씩씩해하였습니다. 그 순간 저 자신을 돌아보며 비록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삶의 순간이 많았지만, 제 삶 속에 함께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자주 이사를 다니다가 중학교 2학년 때 경상남도 창원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데다, 잦은 이사로 인해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해야 했기에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외로운 아이였습니다. 그나마 잘하던 공부도 점점 따라가기 어려워졌고, 성적이 떨어지면서 아버지의 꾸짖음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구나’ 하는 자괴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과 함께 다니던 군인 교회가 아닌, 친구들과 다닌 교회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예배 중 말씀이 너무 달게 느껴졌고, 마음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였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학교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가기 전 매일 교회에 들러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중, 고3 여름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던 제게 예수님이 빛으로 다가와 품어 주시며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늘 “뭐가 될래? 세상에 쓸모없는 자식”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저에게,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3일 밤낮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스물아홉 살 때 직장에 입사하면서 신앙과 세상 중 선택의 결단이 필요한 때에 세상을 택하였고 그것은 이전과 달리 저를 깊은 죄책감에 빠뜨렸습니다. 그 죄책감에서 도망치듯 해외 파견을 신청해 이란으로 나가게 되었고, 이슬람 국가인 그곳에서 예배드릴 수 없게 되면서 신앙은 더욱 메말라갔습니다. 2011년에 이란에서 한국으로 복귀하면서 안양에 정착하게 되었고, 열린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며 몇 달을 눈물로 예배드렸지만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저를 더욱 옥죄어 왔습니다. 아니, 어쩌면 죄책감을 핑계 삼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돌발에 뿌려진 씨와 같이, 말씀을 들으며 눈물로 달게 여기면서도,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8년이 지난 2019년,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성장반을 진행하며 나의 방종과 게으름을 회개했고, 교리반을 들으며 하나님과 말씀을 깊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말씀 없는 감정적인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신앙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내·해외 아웃리치에 참여하며 만난 영혼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바라보시는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가 확산하던 2020년에 갑작스럽게 이집트 카이로 주재원으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위협에 모두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상황에서 우리 가족은 소위 ‘험지’인 이집트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의 삶과 일은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먹이시며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한인 교회 학생부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며 예배할 때마다, 날마다 은혜를 채워 주셨습니다. 그 아이들과의 나눔을 위해 시작한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은 제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집트로 나가게 되었던 것처럼, 2024년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결정되었고, 가족과 함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고향에서 노쇠하신 아버지를 마주했을 때, 그리고 저 또한 육체가 쇠약해지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언제일지 모르는 인생의 유한함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계획을 고집하며 알지 못할 내일과 훗날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함을 절실히 느끼면서 다시 부르신 한국 땅에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열린교회에서 다시 제직교육과 교리반을 듣고, 주일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 말씀이 체계적으로 세워지며, 속사람이 자라나고, 어린 시절 예수님을 만난 회심의 기쁨이 다시 채워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교리반에서 담임목사님의 말씀 중에 “갈라진 제물 사이를 지나시며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그러나 아브라함 자손의 죄악으로 성취될 수 없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것”이라는 복음을 마주하며 느꼈던 감동은 제 평생 불뎌며 전해야 할 생명입니다.

‘예배소에서 복음을 만나다’ 설교에서 사명을 위한 삶의 방향으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겸손과 온유로 내적인 연합을 이루며,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세워가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며 저와 우리 가족을 부르심이 이를 위함임을 깨닫습니다. 제 나이 마흔일곱, 돌아보면 부끄럽고 아쉬운 날들이 많았지만, 제 삶의 곳곳에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삶의 걸음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함께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여정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저와 같은 아픔을 지닌 이들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김성진
- 시무장로** 김기현 박정갑 금성철 황철호 김대영 박기준 김용연 성경열 김춘경 이영춘 구용회 이동훈 박희준
- 은퇴장로** 임두순 이대환 김희철 박찬동 김원호 김남근
- 부목사** 이성도 최성기 류요한 권경철 명성인 심재운 정대환 김하림 이규희 김동기 손하람 최영광 김진산 김태영 정호석 최은광
- 협동목사** 정창욱
- 강도사** 김민성 이두호 조일권
- 전도사** 최선미 양승희 김미영 조희숙곽혜정 김현희 김다영 김진하 이찬 이순이
- 교육전도사** 박승훈 권세원 이해선 박주광 김태훈 최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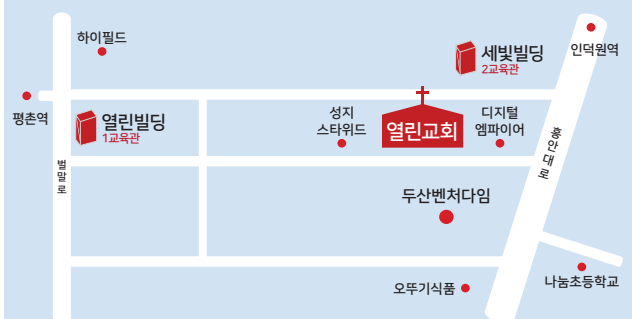
파송선교사

- A국:** 2 units / **B국:** 1 unit
- 말레이시아:** 양선우 & 전혜림
- 에스와티니:** 황아론 & 양진영 / 박현철 & 박상유
- 인도네시아:** 신동진 & 정지현
- 태국:** 김요한 & 이진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주일예배	1부	오전8시(본관 3층 예배실)
	2부	오전10시(본관 3층 예배실)
	3부	정오12시(본관 3층 예배실)
	4부	오후2시(본관 3층 예배실)
주중예배	수요일예배	오후7시30분(본관3층예배실)
	목요일장년예배	정오12시(본관3층예배실)
기도회	새벽기도회	오전5시30분(본관3층예배실)
	금요기도회	오후8시(본관3층예배실)
	화요일전도기도회	오전10시(본관1층예배실)
	수요일심화기도회	오전10시30분(본관3층예배실)
	토요강단기도회	오후4시(별관2층교육실4)
	교회학교	청소년부
소년부		오전10시/정오12시(열린빌딩2층교육실3)
초등부		오전10시/정오12시(열린빌딩2층교육실2)
유년부		오전10시/정오12시(세빛빌딩4층교육실3)
유치부		오전10시/정오12시(세빛빌딩3층교육실2)
유아부		오전10시/정오12시(세빛빌딩2층교육실1)
영아부		오전10시/정오12시(별관1층교육실2)
사랑부(취학부)		오전10시(별관1층교육실1)
외국인	중국팀	정오12시(세빛빌딩5층중국실) 中午12点(世光大厦5楼中文部)
	백향목	봄·가을학기 금요일오전10시30분(본관1층예배실)
금요 테마학교	미취학부	오후8시(별관1층교육실1)
	취학부	오후8시(별관1층교육실2)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4번출구)에서 버스 환승하거나 평촌역(3번출구)에서 20분 정도 걸어서오시면 됩니다



우리 삶은 때로 깊은 어둠을 지나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빛이 되어 주십니다.